

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열차 탈선

- 국토부, 철도안전상황실 운영, 철저한 조사 통해 원인 규명 계획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.14일(일) 20:03분경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신평역 인근에서 운행 중 탈선한 사고와 관련,
 -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며, 신속한 사고복구와 사고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하였다고 밝혔다.
- 사고열차는 고장차량으로 차량기지로 회송하던 중 신평역에서 탈선하였으며,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 - 탈선으로 인해, 당해 도시철도는 노포역~중앙역 구간만 부분적으로 운행 중이며, 다대포역~중앙역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황이다.
-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, 부산교통공사는 오늘(5.15일) 첫 차(05시)부터 정상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.
 -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기간 동안 승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대포역에서 중앙역까지 도시철도 노선과 동일하게 버스수송을 시행 중이며, 안내방송 등 정보 제공 중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철도차량의 정비, 선로 유지보수 실태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원 (044-201-4603)